

자가수정은 수태을 향상의 지름길이다



조 성 달

유밀원목장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연곡리

내가 처음 낙농을 시작한 것은 지금부터 22년전인 1972년 6월 24일 16세의 어린나이로 안양의 모 농장에서 5년간의 목부 생활하며 고생한 끝에 6개월된 암송아지 한마리와 함께 청운의 꿈을 안고 돌아오면서부터 시작된다. 조그만 삼륜차에 싣고 고향에 오니 신기하여 온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다. 그도 그럴 것이 젖소라고 말만들었지 실체는 처음보니 말이다...

귀향후 1년간 송아지를 키우며 온실도 지어 꽃재배를 하며 기울어진 집안을 일으키려고 부단히 노력하던 중 모든 것을 아버님께 맡기고 군에 입대하게 되었다.

당시만 해도 인공수정사가 별로 없어 60여리 떨어진 포천읍내에 있는 인공수정사가 출장을 다녔는데 수정이 잘 되질 않았다. 지금 생각해 보면 수정적기를 맞추지 않은 듯 하다. 임신을 시켜놓지 못하고 입대를 하였는데 아버님께선 그후에도 여러번 인공수정사를

불러보았지만 결국 수정이 안되어 20개월령이 넘어 할 수 없이 한우에 수정을 시키셨다 한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눈이 무릎까지 빠지는 한겨울밤에 소가 발정이 와서 고삐를 끊고 달아나 20여리 떨어진 도평리까지 가서서 끌고 오신적도 있으시단다. 그렇게 어렵게 수정을 시킨소가 분만을 할때가 되었는데 아버님께선 걱정이 태산같던차에 (한우는 많이 길러보셨지만 젖소는 처음이라?) 내가 군대에서 1년여만에 첫 휴가를 나와 송아지를 받게 되었으니 지금 생각해도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암송아지이었다. 한우 교잡우라 그런지 젖소를 좀 닳았지만 온몸이 거의 까만게 먹통이었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애지중지 길러 수정을 시켜 만삭이 되어 분만을 했는데 또 암송아지였다. 그런데 착유를 해보니 10kg 정도 밖에 나오지를 않았다. 당시는 젖소가 20kg 정도면 잘 나온다고 했는데 절반정도 수준이어서 실망을 하고 팔아서 초

유폐기 암송아지 두마리를 샀다.

이렇게 하여 차츰 소가 늘어났으나 맨처음 인공수정을 못시키고 한우로 교잡종을 생산한 것은 두고두고 후회가 되었다.

이무렵 나는 이미 제대를 하여 아버님과 같이 낙농을 하다가 몇마리 안되는 소에 온식구가 매달리나 싶어 젖소는 아버지에게 맡기고 돈을 벌고자 부화장과 종계장에서 3년동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82년말에 결혼한 후 만삭우 두마리를 가지고 분가를 하여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연곡4리 제비울에 자리잡게 되었는데 이곳은 10여호가 사는데 10호가 다 목장을 한다. 이곳에서 10년정도 살면서 좌절의 고비도 여러번 겪었으나 그때마다 나는 내 자신에게 "나는 꼭 낙농으로 성공하고야 말겠다"고 입술을 깨물며 다짐을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푼푼이 모은돈 1천만원과 농협의 용자를 얻어 원래 내가 자랐던 마을인 이곳 이동면 연곡1리에 약 1,300평의 땅을 '90년 봄에 매입하였고 '91년 가을엔 시설자금 3,000만원을 받아 축사를 신축 개방식 후리스틀우사 1동 120평과 육성우사 1동 80평간이헤링본 시설을 한 착유실을 갖추게 되었으며 현재의 사육규모는 착유우 20여두와 육성우 16두이다. 이중 곧 만삭이 될 초임우를 비롯한 육성우 16두는 전부 자가수정으로 태어난 송아지들이다. 나는 유우개량을 해아만이 살길이라는 강한 집념으로 10여년 전부터 근친번식등을 피하기 위해 개체기록부에 철저히 기록하며 컴퓨터로 종모우를 선발해 주는 K수정사에 게서만 수정을 해왔다.

평소 자가수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아래 '92년 봄 경기도 원당에 있는 유우개량사업소에서 인공수정교육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이동축산계원 6명과 함께 매일아침 착유를 마치고 봉고차로 출퇴근을 하며 열심히 배웠다.

전국에서 34명이 모인 우리 낙농반 1기생들은 불과 10일간의 짧은 교육기간이었지만 한국의 제1회라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을 받았으며 서로가 한번의 실습이라도 더하려고 아우성이었다. 동기생중에는 64세된 노낙농인도 매일 착유를 하며 배우니 우리 젊은 사람들은 더 열심히 수 밖에 없었다.

우리 축산계에선 2기, 3기 계속해서 몇명씩 수정교



육을 받아 이젠 낙농계원 17명 전원이 수료증을 갖고 있다. 우리 다음기인 2기에서는 관광차를 대절하여 매일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한다.

교육을 받은 후 우리 소들은 한달후 부터 발정이나 자가수정을 하게되었다. 처음 수정을 시키는데 집사람이 옆에서 꼬리를 잡아주다가 하도 오래 시간이 걸려도 수정을 못시키니까 "수정사를 부를 것을 괜히 소만 망가뜨리나 보다"고 하며 투덜대기에 옆에서 잔소리를 한다고 소리를 쳤다. 처음엔 자궁경관 찾기가 어려워 수정사를 부를 생각도 하였으나 오기가 생겨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수정을 시켰다.

그래서 이젠 어느정도 자신이 생겼다. 수태율은 수정사가 시키는 것 못지않게 높아 90% 정도다. 1마리 정도가 매년 늦게 들어가는 것 외에는 별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송아지들이 자라 이젠 만삭이가 가까워 온다.

우리 소들중에는 5~6대를 걸쳐 개량한 소가 있는데 이상하게도 거의 90%가 암송아지를 낳는다. 소가 좋아 우군전체에서 40%를 차지하는데 모두가 능력이 우수해 27kg의 우유를 생산하고 있다.

우리 소들 중에 어미능력이 초산에 25kg, 3산에 63kg(피크), 딸소는 초산에 38kg, 외손녀는 초산에 43kg인 소가 있는데 이외 손녀의 딸소가 자가 수정으로 태어나 다시 우수한 종모우의 정액으로 자가수정

하여 95년 1월초면 태어난다. 얼마나 기대가 큰지 그 날을 학수 고대하고 있다. 제발 암송아지를 분만해야 할텐데 하며 기대해 본다. 자가수정을 하면 내가 원하는 정액을 내가 필요한 시간에 수정을 시킬 수가 있다. 미심쩍으면 두번시켜도 좋고 그래도 별 부담이 되지 않는다. 정액값만 부담하면 되니까. 젖소 충전비 포함 평균 5,500원 정도 든다.

우리지역은 축산계원이 공동출자해 콘테이너와 정액을 공동구입해 놓고 각 지역별로 1개씩 3개를 비치하여 관리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2년이 넘어 내년 봄이면 3년째다.

경제적 여유가 된다면 개인별로 콘테이너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정액구입비가 처음엔 너무 많이 드는게 흠이다.

내가 경험한 자가수정의 이점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우수한 정액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② 축주가 개체기록부만 잘 기록하면 근친번식을 피할 수 있다. 대개의 농가에서는 아무정액이나 넣는 수가 있다.

③ 가축개량이 확실하다.

④ 비용이 절감된다. 자가수정을 하면 30% 정도의 비용으로 가능하다.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자가수정하면 잃는 것 보다 얻는 것이 훨씬 많다. 자 아직도 늦지 않았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도 하지 않는가.

아직 자가수정교육을 받지 않는 분은 어서 지역축협에 문의하여 자가수정교육을 받고, 교육을 받고서도 수정을 안하시는 분은 자신감과 오기를 갖고 도전해 보시기 바란다.

가축의 종별, 체중별 분뇨 발생량

(단위 : kg, 일, 두)

구 분 축 종	연 령 및 체 중	분(糞)	뇨(尿)	계	
젖 소	자우	150	5.0	3.5	8.5
	육성우	250	15.0	7.5	22.5
	성우	500	27.5	13.5	41.0
	착유우	550	40.0	20.0	60.0
육 우	0-6개월		4.5	1.5	6.0
	6-12개월		11.5	4.0	15.5
	12개월이상		22.0	5.5	27.5
돼 지	새끼돼지	30	1.3	2.0	3.3
	육성돈	60	2.3	3.5	5.8
	성돈	90	2.7	5.0	7.7
	종돈	250	3.3	5.5	8.8
닭	산란계	1.6	0.15	-	0.15
	육계	1.4	0.13	-	0.13